

# 강진만 패류양식 어민 보상길 열리나

### 폐사 원인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 담 건설·매립 등 인과 관계 규명 29개 어촌계 어업인 보상 초석 마련

강진군이 강진만에서 발생하고 있는 패류 폐사 문제와 관련, 원인 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고 피해어업인 보상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했다.

강진군은 최근 수산과학원 강진지원 대강당에서 용역 실무자와 어업인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만 패류 감소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패류 생산감소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 규명을 통한 어업인의 합리적 보상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역비 8억3200만원을 분담해 2018년 전남대산학협력팀과 함께 조사용역을 시행해 왔다.

특히 이번 용역은 2006년 장흥담 담수 시작 이후 강진만 각종 사업(장흥담, 간척·매립 사업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변화 및 생물변화, 염분상승 변화 등 패류 감소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해 패류 감소 피해 산정을 위한 원인을 규명 조사한 것으로 의미가 깊다.

이와 함께 강진만의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보고회 자리에서 유미자 강진 부군수는 "강진 어업인의 피해 보상을 위해 민선 6기에 시작된 패류감소원인조사 용역이 장장 4년 8개월의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최종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게



유미자 강진군 부군수가 지난 26일 수산과학원 강진지원 대강당에서 열린 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됐다"고 말했다.

또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 피해 어민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군 전체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지만, 생업을 포기 당한 어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군 차원에서 가장 최후의 수단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법적 소송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보고회에 참석한 박범석 강진수협조합장은 "2006년 장흥담 건설로 탐진천의 담수 유입이 급격하게 줄어 이로 인한 고염분화 지속, 오염물질 정체, 먹이 플랑크톤 감소 등으로 인해 패류생산량이 대거 감소했다"며 "후대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줄 어업생산의 터전을 잃은 어업인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은 이번 최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패류생산 어업인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16일 전남대 용역팀에게 사전 설명회를 듣는 자리에서 "장흥담 주무부서인 수자원과 환경부에 신속한 보상을 위한 협의 방안할 계획으로 패류 양식장에 대한 보상 감정평가 용역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패류 생산 급감으로 인해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어업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내 잘못이 아님에도 큰 피해를 본 어업인의 보상길이 열리는 그날까지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9월 2~3일 담양 예술야시장 '월:담'

### 담주 다미담예술구 일대서 전시·특산품 판매 플라마켓

담양군 문화재단 문화도시추진단이 다음달 2일부터 이틀간 담주 다미담예술구 일대에서 '담양 예술야시장 월:담'을 진행한다.

담양 예술야시장 월:담은 담양에서 활동중인 도예, 서양화, 사진, 조각에 분야 예술가 25개 팀이 참여하는 전시와 담양산 농특산물과 공예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소규모 플라마켓으로 구성된다.

2일 오프닝 공연은 담양문화도시 담빛시민단에서 예술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정순(한국화), 김현송(한춤) 예술인이 맡았다. 한국화와 춤의 협업을 통해 담양을 상징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또 조각에 작품 전시는 담양 공예인협회와 협업을 통해 시대를 이어오는 대나무 정신을 표출하며 조각예품의 판매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문화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담주 다미담예술구 구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를 진행했지만 지역의 판매자와 예술가로 구성된 야시장 운영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양=노영한 기자 nyc@kwangju.co.kr

## 나주천연염색재단 매직 에코프린팅 기법 개발

### 식물 염색 한계 보완...국내외 보급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 새로운 천연염색 '에코프린팅' 기법을 개발해 국내외 보급에 나선다.

천연염색 에코프린팅(Eco printing)은 잎·꽃 등 식물체를 천(피염물)에 직접적으로 접촉시킨 후 증열처리 등에 의해 염색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식물체와 천만 있으면 나뭇잎과 꽃 모양을 간단하게 천에 염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류, 패션소품, 인테리어용 직물, 교육 및 체험 등에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안고 있다. 잎사귀 모양이 예뻐도 식물체에 색소가 적거나 염색성이 낮은 식물체는 활용성이 떨어진다.

특히 식물의 색소는 계절에 따라 단풍, 낙엽처럼

달라지고 다양한 색으로 염색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한 염색 기법이 개발됐다.

나주천연염색재단 허복구 운영국장은 식물체에 있는 색소를 빼낸 후 염색하고자 하는 천연염료를 식물체에 흡수 또는 흡착시키는 단계별 에코프린팅 기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재단은 이러한 기법을 '매직 에코프린팅'이라고 명칭하고 국내외 보급에 힘쓸 계획이다.

허복구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국장은 "새롭게 개발한 매직 에코프린팅 기법은 그 자체는 물론 기존 에코프린팅과 함께 활용할 경우 응용 범위가 광범위해질 것"이라며 "세계 각지에 보급할 경우 한국과 천연염색의 분향 나주의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 함평군, 추석 전 10만원 군민재난지원금 지급

### 내달 1일부터 9주간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수령

함평군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추석 전 제3차 군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32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8월1일 기준 함평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다.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주이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류형 함평 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군은 9월 1~2일에 마을별 직접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도 실시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 '화순국화향연' 3년만에 개최

###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

화순군 대표적 축제인 '2022 화순국화향연'이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화순읍 남산공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 연속 축제를 취소했다가 3년 만에 재개한다.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개막식 등 대규모 이벤트 행사는 하지 않는다.

대신 야간에도 국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감성 포토존을 조성한다. 군은 축제를 위해 남산공원에 국화, 나비바늘꽃, 여새 등 식물 6종 27만 주를 재배·관리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푸른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지는 오색천란 국화 동산에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장성 바람개비 언덕길...바람 불면 돌아가는 500개 해바라기



장성을 주민자치회(회장 기세연)가 올해 역점 추진사업으로 선택한 바람개비 언덕길 조성사업이 최근 완성됐다. 500개의 해바라기 조형물이 장성담으로 올라가는 나무계단 양쪽과 담 위에 설치, 바람이 불면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장성군 제공>

#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